


[네이버](#) [메일](#) [마이네이버](#) [마이홈](#) [도움말](#)

SK 상사 SK 유통 SK 에너지판매

[뉴스홈](#) [주요뉴스](#) [정치](#) [경제](#) [정보통신](#) [사회](#) [연예오락](#) [스포츠](#) [증권](#) [부동산](#) [세계](#)
[뉴스통합검색](#)
[한겨레신문](#)
[기사 리스트](#)
[한겨레](#)

년도 ▼ 월 ▼ 일 ▼ 에서
 년도 ▼ 월 ▼ 일 ▼ 까지

모든신문 ▼

모든섹션 ▼

신문사별 뉴스

[연합뉴스](#)
[Joins.com new](#)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로이터](#)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일간스포츠](#)
[스포츠투데이](#)
[코리아타임즈](#)

섹션별 뉴스

[주요뉴스](#)
[정치](#)
[경제](#)
[정보통신](#)
[사회](#)
[연예오락](#)
[스포츠](#)
[증권](#)
[부동산](#)
[세계](#)
[산업/기업](#)
[건강/생활](#)
[사설/칼럼](#)
[기획/연재](#)
[과학/기술](#)

[공동체] '조상묘 잘쓰면 후손이 덕 본다'는 풍수사상

1998.09.25 (금) 00:00

▶프린트 하시려면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장 공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라는 이름의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저명인사 30여명은 그 자리에서 모두 '화장 유언 서약서'에 서명했다. 장묘문화 개혁을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유언장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전 국회의원). 이날 박씨는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2년 전 박씨는 남편(안병무 전 한신대 교수)과 사별했다. 남편은 10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늘 박씨에게 화장해달라는 말을 해왔다.

“언제나 합리적이고 바르게 살았던 남편이기에 평소에 저는 ‘남편 말을 잘 듣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화장하겠다는 약속만은 선뜻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내 몸이 아픈 것 같습니다.” 결국 박씨는 남편을 화장하지 못하고 매장했다. 주위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말로는, 머리로는 ‘매장문화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막상 가까운 사람의 문제로 닥치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씨는 이날 모임에도 ‘마음까지 설득당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왔다고 말했다. “아직 결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남편의 소원도 들어주고 나 자신의 문제도 결정해야겠지요.”

최근 ‘장묘문화를 개혁하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해마다 20여만기의 신설묘지가 여의도 면적의 1.2배 크기를 잠식해가고 있는 묘지난,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부유층의 호화분묘, 전 묘지의 40%가 무연고 묘로 방치되는 현실 등이 화장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매장문화가 하루아침에 ‘퇴출’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박씨의 이야기에서 짐작할 수 있다.

박씨가 주위의 반대에 부딪친 이유는 무엇보다 화장을 ‘불효막심한 짓’ ‘망자에 대한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국립민속박물관 김삼대자 민속연구과장은 “화장하는 사람은 ‘무덤 살 돈이 아까워 화장하려고 한다’는 비난까지 각오해야 하는 게 우리의 정확한 현주소”라며 “유교의 영향이 아직 너무 막강하다”고 말했다.

풍수지리사상도 매장 선호의 이유로 빼놓을 수 없다. 지난 96년 한국 토지행정학회 조사에 따르면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56.7%가 ‘조상의 묘를 잘 쓰면 후손이 덕을 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 풍수지리학자 최창조씨는 “사람들의 매장에 대한 진찰은 겉으로는 ‘충’라는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

[지역](#)[인물](#)[영문뉴스](#)[기타](#)[증권사 시황속보](#)[대우증권](#)[현대증권](#)[대신증권](#)[LG투자증권](#)

제로는 죽은 자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이기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매장에 대한 고집에는 산 사람의 영악함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절실함도 없지 않다. 박씨가 화장을 주저했던 것은 무엇보다 ‘망자를 두 번 죽인다’는 본능적인 거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고인의 남은 흔적이나마 붙들고 싶어 하는 게 남은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최근 남편을 화장한 김수자(55)씨의 이야기는 이런 ‘심리적 마지노선’을 깨뜨리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김씨는 지난 8월 직장암으로 남편을 잃었다. 남편은 임종할 때 “죽은 사람은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지 몸으로 간직하는 게 아니잖으냐”며 화장해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김씨와 자식들은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울었고 친척들도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화장을 했다.

하지만 막상 화장터에서는 김씨도 겁이 났다. 모든 것이 없어져버린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재는 남편이 생전에 즐겨찾던 산에 뿌렸다. 납골당은 고인을 가뉘놓는 것 같아 싫었다. 막상 재를 뿌리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다. “몇년 동안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몸에 구속받지 않고 훨훨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 김씨도 화장을 할 생각이다.

하지만 누구나 김씨처럼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씨의 친척들은 ‘고인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도 뭔가 그를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며 화장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처럼 망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을 머뭇거리게 하는 큰 이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필도 연구원은 “묘지는 단순히 주검을 안치하는 장소가 아니라 산 자가 죽은 자를 찾아가 그리워하는 공감의 장소”라며 “화장은 이런 점에서 약점을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매장문화 역시 이런 만남을 가로막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고향을 떠나 바쁜 도시생활에 매달려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조상의 묘지는 자주 찾아가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2대만 지나가면 방치되는 묘들이 급격히 늘어난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시한부 매장 후 화장, 가족납골묘 등은 최대한 면적을 작게 들이면서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 고인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는 고민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장묘 방식은 가장 개인적인 결단의 영역으로 남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현재의 장묘문화를 반성하고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장묘문화 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정경균 서울대 교수(보건대학원)의 지적이다.

어쩌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회변화 때문에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에 대해 고민하도록 강요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선희 기자

♣위로

기사제보·문의·의견 opinion@mail.hani.co.kr